부모님의 태몽과 하나님의 태몽

(시편 23:3~6)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부모님의 태몽과 하나님의 태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부모님의 태몽과 하나님의 태몽'

태몽의 예를 들면 사자 호랑이 구렁이 과일 꽃 보석 물고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태몽이 아들이냐 딸이냐를 결정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계시로 받아들여져서 어려울 때마다 삶의 고단함을 극복하는 희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호랑이 태몽을 예로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호랑이가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꿈만으로도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권력자가 되는 큰 재물을 얻게 될 자녀를 낳는 태몽이라고 합니다. 다른 경우도 비슷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리는 꿈은 큰 사업가나 권력자가 되어 집안을 일으킬 인재가 태어날 태몽이라고 합니다. 땅 속에 묻혔던 호랑이 머리를 파내는 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꿈은 좀 섬뜩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같은 국가의 지도자나 유수한 단체의 우두머리가 될 인재로 태어나서 권세와 명예를 얻게 되는 태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랑이 머리를 파내는 꿈꾸고 자녀 한 번 낳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호랑이 새끼를 한 번에 품 안에 안는 꿈은 장차 높은 자리에 올라 부유하게 살게 될 연년생 형제를 낳게 될 태몽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똥 속에서 투명하고 고운 옥이 나오는 꿈은 귀여운 딸을

낳게 될 태몽이라고 하는데 제일 시시합니다. 이왕이면 귀여운 딸이 자라서 호랑이 꿈을 꾸고 태어난 남자 아이와 결혼할 태몽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태몽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선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태몽은 양입니다. 양이 될 때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왕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선지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와 같이 걸출한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양이라는 자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태몽이 자녀의 자아의식에 대한 확인에 도움을 주듯이 내가 누구냐는 자아의식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창조주의 태몽은 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태몽인 양으로 자아의식을 매 순간 회복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땅에 파묻혔던 호랑이 머리를 꺼내는 태몽에 대한 해몽이 현실이 되는 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태몽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 꾸셨던 태몽을 말하지 말고 '나는 양이다'라고 하나님이 꾸셨던 태몽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본 시편 23편 1~2절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1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과 동시에 마음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양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말을 잊는다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막연하게 받아들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호와가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생기는 자체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창조주 여호와가 목자이신데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지만 나는 여호와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은 잘못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므로 나를 지으실 때에 태몽을 양으로 꾸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지 않고 맹수가 되었습니다. 맹수는 단순히 사납다는 것보다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사냥하여 채우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질이 바로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준 체질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내 스스로 채우려 하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움직일 때에 종교적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푸른 풀밭에 누워서 되새김질만 하면 되고 쉴만한 물가에서 동요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요 없이 산다.'라는 말은 삶 자체가 잔잔하게만 진행된

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만족이 주어지고 부족함이 없어질 때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마음은 잔잔한 물가처럼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풍랑만난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것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조차도 쉴만한 물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으로 여기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 3절을 살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아는 것 같아도 막연합니다. 여기에 1절을 붙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도다'라고 해봅니다.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지치고 죽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탈진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마음에 아무리 채워봐야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고 살았기 때문에 지치게 된 것입니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지만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소생'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원죄의 체질인 육체로 보고 듣고 만지는 세상의 가치들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부족함을 느낄 때에 육체가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부족함을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목회가 부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육체로 만나는 세상에서 이유를 찾음으로 여기서 탈진이 일어나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괴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수의 삶입니다. 내가 움직여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맹수의 강박관념입니다. 배고픔을 위해 내가 사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칠 때에 선민은 나의 태몽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기 위해 꿈꾸셨던 본질적 모습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꾸었던 태몽이 무엇이었는지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셨던 태몽을 생각해서 내가 양으로 지음 받았음을 깨달을 때에 지금 놓인 모든 상황에 대해 속수무책이 됩니다. 양에게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맹수의 기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양의 태몽을 꾸셨던 것은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다가 마지막에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 양과 함께 하시는 목자로서 계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양이 되어서 온 몸으로 목자를 향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생이 됩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듣고 따르고 갈망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동물인 양의 마음이 목자로 채워지지는 않

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입함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인 양과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만족해지고 기뻐지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고단하게 했던 삶의 환경이 푸른 풀밭으로 변하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으로 생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되새김질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중생들이 친구를 폭행하여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를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때마다 좋아했다가 그런 사람이 나올 때마다 싫어했다가 합니다. 김정은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불안에 떨거나 괘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김정은을 만드실 때에 가지셨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아내를 바라봅니다. 아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로 살다 죽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은 알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본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기에 자녀의 본래 모습조차 모르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풍선아트를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어진 풍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들어가서 팽팽해져야만 그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은 히브리어로 '바람'이라는 뜻의 루아크(רוּחַ)입니다. 영과 바람을 같은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서 본래 모습이 나타나듯이, 내 마음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충만해질 때에 본래 계획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소생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버거울 때에 나의 태몽이 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은 절대로 푸른 풀밭을 꿈꾸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푸른 풀밭을 꿈꿀 때에 지금을 부족한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양은 목자를 바라볼 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고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맹수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태몽인 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맹수로 살려고 하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에게 더 이상

의 기쁨거리를 주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할 수 있도록 무엇을 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조명을 받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삶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태몽이 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바라거나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양된 우리는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서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나의 나머지 길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학력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되새김질하는 사명적 삶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고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절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4절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라는 말씀과 5절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라고 하는 말씀도 1절의 상반절 말씀을 붙여 읽음으로서 이해가 쉬워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읽으며 내가 여호와의 양임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곧 위급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면 온 집안에 먹구름이 낍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든지 가족 중에 암이 걸렸다든지 이보다 더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혹은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럴 때에 나 자신에 대해 암 걸린 환자이고 해고당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자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병이 걸렸더라도 남편이 해고를 당했더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양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맹수가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양입니다. 양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사자를 이기는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어떤 가능성을 공감해주기를 바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35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나의 맹수적 기질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판단하는 것이 맹수적 기질입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목

사를 선택하는 것도 나의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이것은 양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가 살기등등한 시선으로 노려보고 있을 때에 그 앞에서 불꽃 튀는 눈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양이 되어서 목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의식을 결정하는 태몽은 하나님이 꾸신 양입니다. 내 영혼이 지쳐서 가라앉았을 때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이든지, 원수가 살기등등해있을 때이든지 양 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고 이 말씀 전에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면 100%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리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이기겠다고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어야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리에 둘러싸였다고 해서 내가 사자가 되어서 발톱을 곤두세운다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실 수가 없기 때문에 16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뱀의 지혜는 곧 마귀가 에덴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킬 때에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신분의식을 속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뱀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리들에게 둘러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뱀의 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자아의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목자를 바라보고, 원수가 당장 죽일 것처럼 기세등등할 때에도 양은 목자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은 맹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원죄의 체질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만 부족함을 느끼며 그것을 채우려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맹수적 체질이 발동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양처럼 속수무책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서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맹수 체질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 마음의 시선을 보내어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붙잡아야만 우리의 맹수체질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다윗의 시편 23편이 그대로 여러분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냥 멋있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순간 한 순간을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한 땀 한 땀 채워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맹수 체질을 죽이고 하

나님의 태몽인 양이 되기만 하면 기가 막히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의 태몽을 잊지 말고 양되기 위하여 오늘도 생의 한 땀 한 땀을 십자가 생활화로 이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맹수 체질이 죽고 진정한 양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